

신인 중심 민주당 vs 현역 다선 민생당 ‘뜨거운 대결’

민주당 경선 갈등 넘어 ‘원팀’ 성사여부 관심 민생당, 천정배 7선 도전...3선 이상 7명

제21대 총선에 광주·전남지역 현역 7명이 3선 이상에 도전하면서 '다선 국회의원의 생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선에 도전하는 민생당 천정배 후보는 전국 최다선 의원에 등극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이번 선거에선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민생당 현역 의원들이 '호남 수성'을 위해 승부수를 던졌고, 정치 신인 중심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높아 여야간 대결도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29일 4·15 총선 후보등록 마감 결과, 광주·전남지역에서 3선 이상 도전하는 현역 의원은 총 7명으로 집계됐다.

민생당 천정배(광주 서구갑) 후보는 7선에 도전한다. 천 후보는 안산에서 4선, 서구에서 재선을 했다. 전국적으로 8선 의원은 서정원 의원으로, 한차례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이번에도 우리공화당 비례대표 2번으로 도전한다.

민생당 김동철(광주 광산갑), 박지원(목포) 후보는 5선에 도전한다. 김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말을 갈아탄 뒤 4선 고지에 올랐고, 이번엔 민주당 이용빈 후보와 겨룬다. 박 후보는 14대 비례대표와 18·20대 내리 3선을 했으며 첫 여의도 입성을 꿈꾸는 민주당 김원이 후보와 한판 승부를 펼친다.

또 민생당 장병완(광주 동남갑) 후보는 4선, 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민생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장진) 후보는

각각 3선에 도전한다.

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민생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무소속 김경진(광주 북구갑) 후보와 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무소속 이용주(여수갑), 무소속 정인화(순천광양곡성구례을), 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민생당 윤영일(해남완도진도) 후보는 재선에 도전한다.

다선에 도전하는 민생당 현역 국회의원들의 경우, 민주당 후보와 피할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이번 총선 관전포인트다. 민주당의 지역 내 높은 지지율 속에서 민생당 현역 국회의원들의 조직력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지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 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치열해 후보간 고소·고발도 잦았던 만큼, 경선 통과 후보와 낙선 후보가 손을 잡는 '민주당 원팀' 성사 여부도 주요 변수로 손꼽힌다. 지명도가 다소 낮은 민주당 신인급 후보들이 수년간 쌓인 조직력을 앞세운 민생당 다선 의원들과 힘을 겨루기 위해서는 당내 통합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민생당이 최근 당을 재정비하고, 이들 현역 의원들은 지역 내 조직이 탄탄하다"면서 "과거 호남 총선은 각 지역구별 '맹주' 중심으로 상급계 끝이 났지만 이번 총선은 여야 대결 구도가 명확한 특색이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줄어든 여성 후보...광주 5명·전남 3명

전체 9.2%...20대 총선 대비 광주 5명 줄고 전남 2명 늘어

광주·전남지역 제21대 총선 여성후보가 20대 총선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각당이 경선 과정에 여성 예비후보에게 가산점을 주고, 후보 비율도 각각 배정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탓이다.

29일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5총선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여성 후보는 광주 5명, 전남 3명 등 총 8명으로 전체 후보 87명의 9.2%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광주는 전체 후보 42명 중 5명으로 11.9%, 전남은 45명 중 3명으로 6.7%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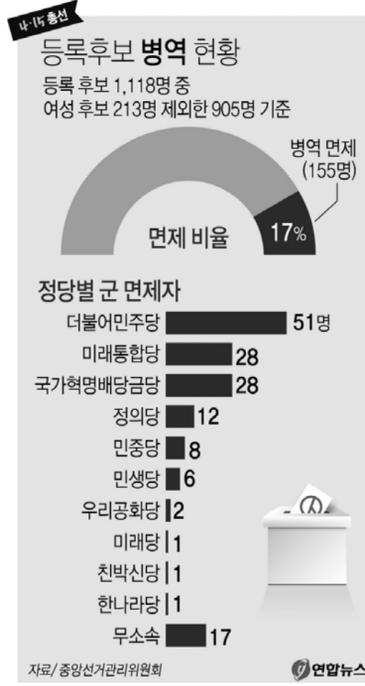
지난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광주는 10명에서 5명으로 감소했고, 전남은 1명에서 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광주 4명, 전남 2명의 여성후보가 등록했다.

21대 총선의 정당별 여성후보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3명으로 가장 많고, 정의당 2명, 더불어민주당과 민중당, 기독교유통합당이 각각 1명이다. 미래통합당과 민생당, 노동당은 여성후보가 전무하다.

한편 광주·전남의 역대 지역구 여성 의원은 제9대 김윤덕 의원(신민당·제5선거구), 제16대 김경천 의원(민주당·광주 동구), 제19대 박혜자 의원(민주통합당·광주 서구갑), 제19·20대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광주 광산을) 등 4명에 불과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장병완 90억 1위...5년간 세금 체납 이력 14명

국가혁명배당금당 박현두 -2억5천만원 '최저'

재산·납세

광주·전남지역 4·15 총선 후보들의 재산 신고액은 최저 마이너스 2억 4800만 원부터 최고 90억 2806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액수의 재산을 신고한 후보는 광주 동남갑 민생당 장병완 후보다.

또 등록일 기준 현재 체납중인 광주·전남 후보자는 3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세금을 내지 않은 이력이 있는 후보자는 모두 14명으로 집계됐다.

장병완 후보는 90억 2806만 3000원의 재산을 신고, 광주·전남 등록 후보 중 재산 1위를 기록했다.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후보가 34억 9837만 7000원, 광산구갑 민생당 김동철 후보가 30억 5826만 9000원, 동남을 민주당 이병훈 후보가 25억 5248만 2000원, 동남을 민생당 박주선 후보가 24억 5827만 2000원, 북구를 무소속 노남수 후보가 20억 4343만 1000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광산구갑 민주당 이용빈 후보는 14억 419만 원, 북구갑 무소속 김경진 후보 10억 5195만 원, 서구을 민생당 천정배 후보가 10억 850만 8000원을 각각 신고했다. 반면 북구갑 국가혁명배당금당 박현두(58) 후

보의 마이너스 2억 4800만 원을 신고했다.

8개 지역구 후보자 42명 중 총 6명이 최근 5년 사이 세금을 체납한 전력이 있었다. 등록 기준일 현재 체납 중인 후보자는 2명이다. 동남을 국가혁명배당금당 이병훈 후보가 2038만 원을, 광산구를 노동당 이병훈 후보가 513만 1000원을, 북구를 무소속 노남수(50) 후보가 13만 3000원을, 동남을 무소속 김성환(58) 후보가 13만 원을 각각 체납한 전력이 있었다.

북구갑 국가혁명배당금당 박현두 후보와 서구갑 미래통합당 주동식 후보도 각각 482만 2000원, 257만 1000원의 체납 사실이 확인됐다. 등록 기준일 현재 체납중인 후보자는 동남을 국가혁명배당금당 이병훈 후보, 북구갑 국가혁명배당금당 박현두 후보이며 체납 금액은 각각 2038만 원, 393만 4000원이다.

전남지역 재산 신고액은 고흥보성 장홍강진 민생당 황주홍 후보가 36억 6095만 5000원, 여수시를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후보 33억 3273만 7000원,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가 29억 6874만 7000원, 여수시갑 무소속 이용주 후보가 26억 6148만 1000원을 각각

신고했다.

담양함평영광장성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후보는 26억 4612만 1000원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민생당 기도서 후보는 24억 2438만 6000원, 여수시갑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후보가 22억 5294만 원을 신고했다.

해남완도진도 국가혁명배당금당 강상범 후보는 마이너스 8959만 6000원을, 담양함평영광장성 국가혁명배당금당 임태현 후보는 마이너스 3713만 7000원을 신고했다.

10개 지역구 등록 후보자 45명 중 8명이 최근 5년간 세금을 내지 않은 이력이 있었다. 등록 기준일 현재 1명이 체납중이다. 영암무안신안 미래통합당 이인호 후보가 442만 9000원을, 여수시갑 미래통합당 심정우 후보 154만 8000원, 여수시를 무소속 권세도 후보 150만 6000원,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민생당 기도서 후보 128만 9000원, 목포 민생당 박지원 후보 110만 8000원, 목포 미래통합당 황규원 후보 102만 5000원,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정의당 이경자 후보가 15만 원을 체납했다.

등록 기준일 현재 영암무안신안 미래통합당 이인호 후보가 59만 2000원을 체납중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 37명중 11명...전남 42명중 8명 '軍 미필'

병역

광주·전남에서 4·15 총선에 출마한 남성 후보 79명 중 19명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광주지역 총선 후보 37명 중 군 복무를 하지 않은 후보는 동구남구갑 민주당 윤영덕, 서구갑 민주당 송갑석·국가혁명배당금당 김성호, 서구를 무소속 정광선, 북구갑 민주당 조오섭 후보 등 11명이다.

또 북구를 민생당 최경환·무소속 김원갑, 광산갑 민중당 정의성·국가혁명배당금당 오종민, 광산을 민생당 노승일·정의당 김용재 등도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윤영덕, 송갑석, 최경환, 김원갑

후보는 각각 수형(교도소 복역)을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김성호 후보는 생계 곤란, 정광선 후보는 장기대기, 조오섭 후보는 수지결손을 이유로 복무를 하지 않았다. 정의성 후보는 수핵탈출증, 오종민 후보는 근육 손실 및 위축, 김용재 후보는 질병(근시)으로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노승일 후보는 척추분리증을 지칭하는 척추궁 협부 결손을 사유로 들었다.

전남에서 출마한 남성 후보 42명 중 8명의 후보가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복무를 하지 않은 후보는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민주당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민주당 서동용, 화순·나주 민주당 신정훈, 송갑석, 최경환, 김원갑

또 고흥·보성·장흥·강진 무소속 김화진, 해남·완도·진도 민생당 윤영일·국가혁명배당금당 강상범, 영암·무안·신안 무소속 임흥빈 후보도 군 복무를 하지 않았다.

소병철 후보는 디스크 이상으로도 불리는 요추척추궁 완전절제술 및 제4 요추 전이증수술을 사유로 들었다. 서동용 후보와 신정훈 후보, 안주용 후보는 모두 수형(교도소 복역)으로 군대에 가지 않았다.

김화진 후보는 슬내장(膂內障) 수술 후 경도의 기능장애를, 윤영일 후보는 근시를, 국가혁명배당금당 강상범 후보는 장기대기를 군대 가지 않은 사유라고 밝혔다. 무소속 임흥빈 후보는 구체적인 질병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오광록 기자 kroh@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광주 전남 전북

200베드 이상 요양병원 매도·매수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